

## II. 경제·정치 동향

### 1. 경제 동향

#### 가. 국내경제

<표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sup>e</sup>	2009 <sup>f</sup>
경 제 성 장 률	8.4	8.2	8.5	6.2	4.2
재 정 수 지 / G D P	-4.1	-2.9	-7.0	-5.1	-9.0
소비자물가상승률	8.7	6.6	12.6	21.6	6.0

자료 : EIU, IFS

#### (1) 국내경제 및 경제정책

##### □ 고성장 기조 유지

— 사회주의공화국인 베트남은 1986년 대외개방 정책인 도이머이(刷新)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연 평균 7.5%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참고】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

-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가인 베트남은 1975년 통일된 이후 전쟁 후유증,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서방제국의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1979년 말부터 계획경제하의 부분적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신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함.
-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개혁정책인 도이머이(刷新)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음.
-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의 파고를 큰 영향 없이 넘었고 2001년에는 미국과 일반무역협정(NTR)을 맺게 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후 연평균 7.5%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었음.
- 베트남은 2006년 말 그동안 베트남 정부의 숙원이었던 WTO에 가입하고 미국과 항구적일반무역협정(PNTR)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선언하게 되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등 개방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음.

## II. 경제·정치 동향

- 2007년에는 제2위 수출 품목인 섬유 및 식물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부문이 2년 연속 17%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개인 소비와 고정투자가 확대되면서 8.5%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최고 경제성장률임.
- 그러나 2008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일본의 경기 둔화로 수입수요가 크게 축소되면서 베트남의 수출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2008년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6.2%로 둔화되고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2%까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수출이 전체 GDP의 71%(교역규모는 GDP의 160%)를 차지하는 베트남 경제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되며 2008년 경제성장률이 6.2%로 둔화됨.
- 2009년도 경제성장률 또한 3.2%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경기 침체 둔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4.2%로 전망되고 있음.

### □ 재정수지 적자 소폭 확대 전망

- 재정수지는 베트남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 인프라 및 사회복지 부문에의 재정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유 수출액 급증에 의한 재정 수입의 지속적 확대<sup>1)</sup>로 4~5%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의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5.1%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베트남 제1위의 수출 품목인 원유의 수출이 주요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부문에의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재정수지 적자가 정부 목표치를 초과한 9.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재정수지 적자의 지속은 베트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2010년까지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8.3%로 줄어들 전망임.

#### □ 2008년 상반기 중 고인플레로 인한 경제 불안 심화

- 2007년 12월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함으로써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의 긴축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이후 20%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베트남 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베트남 총리가 인플레 둔화를 발표하였던 2008년 6월에도 27%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베트남 경제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의 가격이 상반기 중 42.4%나 상승하였기 때문임.

---

1) 석유 생산 및 수출로 인한 재정 수입이 전체 재정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II. 경제·정치 동향

- 그동안 농산물이 풍부한 베트남에서 식료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가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의 국제적인 곡물가격 인상은 베트남 물가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08년 상반기 중 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음.
- 그러나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베트남 물가상승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베트남 국내의 유동성 확대를 들고 있음.<sup>2)</sup> IMF에서 2008년 3월에 발표한 베트남의 경제위기를 경고한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내 국내신용<sup>3)</sup>은 2007년 중에만 150%나 상승하였음.
- 이는 베트남 정부가 WTO가입이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육성을 위해 과도한 기업 공개 및 확장을 추진하였고, 2007년 중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액이 사상 최고치인 20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었으며, 베트남 재외교포(Viet Kieu) 및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이 증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 2008년 중 주가지수 폭락

- 베트남 경제성장의 상징인 호치민시주가지수(HOSE)는 약 2년 전인 2006년 하반기 이후 고도 경제성장 지속 및 외국인투자 급증

2) IMF, Vietnam's New Challenges Amid Signs of Overheating, March 7, 2008

3) domestic credit = 통화량 + 국내대출

으로 약 6개월 만에 250%나 상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음.

<그림 1> 베트남 주가지수(HOSE) 추이



— 그러나 이러한 베트남 주가 상승의 배경은 실물 경제의 실질 성장 보다는 베트남 내 유동성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2007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2%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베트남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주가지수도 급락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호치민시주가지수는 2008년 6월 17일 기준 378P를 기록, 2007년 5월의 최고점인 1113P에 비해 66%나 하락하여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기 시작한 하반기 이후 560P까지 회복되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2008년 12월 303.9P를 기록하여 전년 최고점 대비 73%나 하락하였음.

## II. 경제·정치 동향

- 호치민시주가지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2009년 초까지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2009년 10월 8일에는 566.42P까지 상승함.

### □ 경제 불안 극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

- 2008년 중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 다수의 국제금융기관들은 베트남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중 투자 유입기준 제2위(2008.10 기준)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시각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베트남 경제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베트남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IMF의 정책 보고서<sup>4)</sup>에 의하면 베트남의 경제과열로 인한 경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 첫째, 베트남 내 유동성의 감축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임. 베트남 정부가 국제적 기준의 대기업 육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부분 통화량 증가를 용인한 것이 이번 베트남 인플레이의 대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

4) IMF, Vietnam's New Challenges Amid Signs of Overheating, March 7, 2008

- 둘째,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함. 베트남 동화 환율은 사실상 미 달러화에 연동(peg)되어 있는데, 이는 미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동화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수입 물가되어 있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최근의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셋째, 국내 경기의 과열을 몰고 온 국영부문의 투자를 축소해야 함. 베트남 국영기업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실시하였으나, 이 자금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매입에 집중하여 거품을 불러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14%로 인상하여 시중은행의 최대 대출금리를 21%로 올렸으며, 이는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내 실질 금리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음.<sup>5)</sup>
- 국내 통화량 환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증서를 발행하였음. 또한 기 승인한 투자사업의 시행, 외화 대출의 상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외화 대출을 금지<sup>6)</sup>하였

5) 베트남 중앙은행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베트남 경제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하반기중 3차례 인하하여 현재는 7%를 유지하고 있음.

6)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달러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8년 4월 14일 중앙은행고시(No. 09/2008/QD-NHNN)를 통해 다음의 3가지 경우에만 달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달러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 ① 베트남내 사업 및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수입, ② 적법한 외화대출의 상환, ③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 등



으며, 국영기업의 투자 억제를 위해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하였음.

- 환율 변동폭 확대를 위해 미 달러화에 대한 동화의 환율 변동폭을 기존 상하 1%에서 상하 2%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08년 11월 6일에는 3%까지 확대하였음.
- 이러한 조치들을 감안하면 베트남 정부가 성장 정책에서 안정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분명하며, IMF 등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베트남 정부의 대응

- 2008년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안정시킨 베트남 정부는 2008년 4/4분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함.
- 베트남 정부는 1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조치와 함께 기업들에게 4% 대출이자 보조금 지급,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와 같은 재정정책을 펼침. 또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7%로의 단계별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을 병행하며 경기 회복을 시도하였고 이는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사회 인프라 및 복지 부문에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와 대출 증가, 신용 확대와 같은 경기부양 정책이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09년 하반기 베트남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NPL 또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143조 VAD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 세계 경기 침체 이후 증가하는 실업률과 부진한 새 일자리 창출은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지며 베트남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물가 안정을 이루며 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은행감독 질적 개선과 국제자금유입 감시, 공공부문개혁 지속, 대기업과 은행의 균형 회복, 재정건전성 강화와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함.<sup>7)</sup>

---

7) Taking Stock : An Update on Vietnam'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wb .

**【참고】 2008년 중 베트남 경제불안 상황에 대한 평가**

- 2008년 들어 물가 급등, 주가 폭락, 부동산 버블 심화,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베트남 경제상황이 불안한 것은 분명하나, 현 상황이 외환위기 등 심각한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베트남은 개방경제 체제의 초기 단계를 막 벗어난 상태로 아직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부문에서의 대외 채무가 많지 않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2007년 말 기준 대외채무 비중이 GDP 대비 31%에 그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sup>8)</sup>도 1.6%에 불과해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 공적채무임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베트남 정부가 2008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9%대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베트남 경제 규모 및 체제가 아직은 베트남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크지도 않고 자유화되어 있지도 않아 베트남 정부의 경기 안정 정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다만, 국영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국영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현재 경제위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최근의 경제 불안으로 이들 국영기업들의 투자가 부실화되어 국영은행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점은 베트남 정부도 항상 최우선적으로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8) Debt Service Ratio : 외채원리금상환액/총수출 \* 100

## (2)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 개 요

- 베트남 정부는 2006년 9월초 관계부처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06~2010」을 작성하였음.
- 동 계획은 지난 2001~2005년간 베트남 경제가 연평균 7.5%의 GDP 성장 및 750만 명의 고용 창출 등의 양적인 성장 확대를 하였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2010년까지 1인당 GDP 1,000달러 달성, 빈곤 인구 비율의 감소(15~16%) 및 도시지역 상수도 공급률 증대(95%)라는 주요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음.

### □ 계획안 작성 배경 및 추진 일정

- 이 계획은 2001년 4월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수립한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 2001~2010」중의 제2차 5개년 계획으로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관련 정부 관계자들 및 기업인들과 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2005년 9에는 원조공여국 기관과도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동 계획안을 금년 4월의 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2001~2005의 주요 실적 평가

— 양적 성장 확대

- 고도 경제성장 시현 : 연평균 GDP 성장률 7.5% 기록
- 산업구조 관련 제조 및 건설 분야 비중 증가
  - : 2000년도 36.7% → 2005년도 41%
- 세계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부문 확대되었음. 동 기간 중 연평균 수출 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16.2% 및 18.5%이며, ODA 지원액은 2001년 24억 달러에서 2005년 3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 2001-2005년간 ODA 공약총액: 147.3억 달러  
(집행: 77.7억 달러)
  - \* 2006-2010년간 ODA 공약총액(예상): 170억 달러  
(집행 100억 달러 예상)
- 고용 증대, 빈곤 인구의 감축, 상수도 공급률 등에 대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

<표 3> 경제사회개발계획(SEDP)의 성과 및 목표

단위 : %

구분	항 목	2001~05 목표	2001~05 성과	2006~10 목표
경제 지표	GDP 성장률	7.5	7.5	7.5~8.0
	1인당 GDP(달러)	410(2001년)	620(2005년)	1,000(2010년)
	산업구조(GDP내)			
	- 농림수산	20~21	20.5	15~16
	- 제조·건설	38~39	41.0	42~43
	- 서비스	41~42	38.5	41~42
	수출증가율(연간)	14~16	16.2	14~16
사회 개발 지표	고용 창출(백만 명)	7.5	7.5	8.0
	숙련 인력 비율	30	26	40
	빈곤인구 <sup>주)</sup>	17(2001년)	7(2005년)	15~16(2010년)
	인구증가율	1.2	1.4	1.12
환경 지표	상수도 공급률	60	62	75(농촌)~95(도시)
	산림녹화율	38~39	38(2005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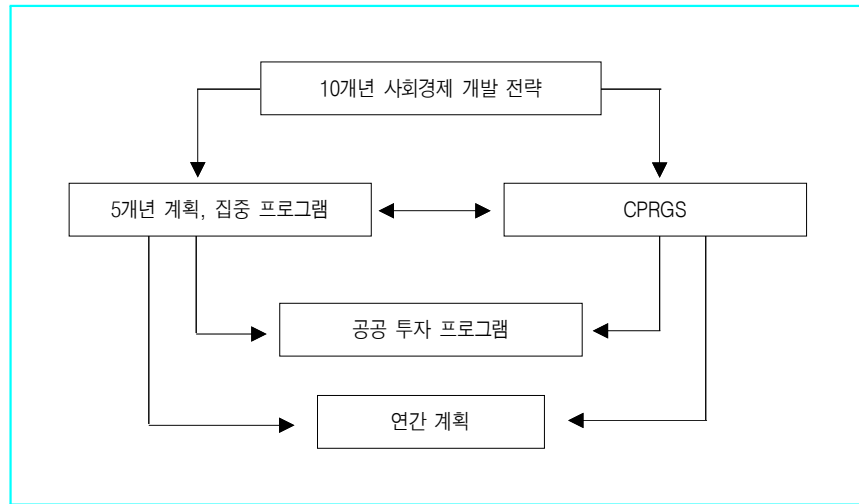
주 : 빈곤인구의 기준은 2005년까지는 월소득 기준 도시지역 약 10달러, 농촌지역 약 6.7 달러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6~10년 계획에서는 이를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도시지역 약 15.3달러, 농촌지역 약 12.3달러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상기 2005년도 빈곤인구 비율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26%에 해당됨.

#### □ 사회경제개발계획 2001~2005의 문제점

##### — 질적 성장 미흡

- 섬유 등 경공업 및 중소기업제품 위주 수출이 총수출의 40.2%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수출 점유율 미비함.
- GDP 대비 서비스 분야 점유율 및 숙련인력 비율에 대한 목표 미달성

<그림 2> 10개년 전략(SEDS)과 SEDP 및 CPRGS 관계도



□ 사회경제개발계획 2006~2010의 방향

— 주요 일반 목표(General Goals)

-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를 통한 저개발국으로부터의 탈피
-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 주요 개발 목표(Main Targets)

- 주요 성과지표는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

## 【참고】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

### □ 개 요

- CPRGS는 베트남이 World Bank로부터 양허적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2002년 세계은행과 IMF에 제출된 베트남판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PRSP)으로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의 각 부문별 개발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임.
- 지속적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①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경제체제 확립, ② 금융시장 안정, 세제 개혁을 통한 정부 재정 안정, 외환 관리 시스템 개선 등 거시경제 균형 유지 ③ 빈곤층을 위한 보건 및 교육 여건 향상 등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음.

### □ 주요 개발 목표

- 지속적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산업 및 부문별 주요 정책으로 ① 빈곤층 소득 창출을 위해 빈곤층의 90%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성장 전략, ②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성 지위 향상, ③ 빈곤층 및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등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 개발목표로서 빈곤 비율 감소,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하수처리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 개선 등 1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정함.

### □ CPRGS의 평가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 베트남 정부 자체적으로 2002~03년간의 CPRGS 추진경과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개발 중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품목이 없으며, 지역·사회적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여, 베트남 정부는 2004년 10월 하노이에서 열린 원조공여국 회의(Donor Group Forum)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전략(National Strategic Ori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ietnam's Agenda 21)을 발표함. Vietnam Agenda 21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로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한 3개 분야 19개 우선 목표를 4선정하였으며 특히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동 목표는 UN의 새천년 개발목표(MDG)와 베트남의 개발목표(VDG) 및 세계은행의 포괄적 빈곤해소 및 성장전략(CPRGS :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 Growth Strategy, 2002년 수립)의 이행과도 부합되게 작성되었음.

#### □ 사회경제개발계획 2006~2010의 주요 특징 및 개선 필요점

##### — 동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

- 베트남 정부가 동 계획 수립 시 처음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stakeholder)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절차를 거쳐 작성
- 동 계획(안)은 MDG 및 베트남의 개발목표(VDG) 등과도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으며 빈곤감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동 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개발계획의 수정, 보완에 있어 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이 중심기조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개선 필요점

- 이번 5개년 계획의 달성목표가 매우 광범위한데 비해 자원 배분 등 달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특히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분에 대한 역할 규정과 국영기업에 대한 투명성 있는 예산 배분 및 행정 효율성 증대가 필요함.
- 투자계획이 경제부문(70%) 위주이고 환경 등 여타부분에 대한 투자(2.8%)는 지극히 미미한 상황으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정책이 필요함.
- 부패방지 및 행정·사법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준비

- SEDS 2001~2010에 이은 이후 10년에 걸친 새로운 사회경제개발전략 논의 준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강도 높은 경제 개혁과 산업 자유화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현대적인 산업 국가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전망.

나. 국제경제

(1) 수출입 동향

<표 4> 베트남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1</sup>
경 상 수 지	-560	-164	-6,993	-11,315	-6,486
경상수지/GDP	-1.1	-0.3	-9.8	-12.9	-6.9
상 품 수 지	-2,439	-2,776	-10,360	-15,968	-9,896
수 출	32,447	39,826	48,561	61,290	55,861
수 입	34,887	42,602	58,921	77,258	65,757
외 환 보 유 액	9,217	13,591	23,872	24,176	22,533

자료 : EIU, IFS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 2008년 중 베트남 상품수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2007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입액 증대
- 외국인투자확대로 인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 증대
- 그동안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인한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
-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의 수입 증가

- WTO가입 및 AFTA 추진으로 인한 관세율 인하로 수입수요 증대

- 주요 수출품인 쌀의 수출 금지

- 이에 따라 2008년 상반기 중에만 전년도 전체 적자규모인 104억 달러를 크게 넘어선 16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중의 경제 침체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로 적자 규모가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아 2008년 전체로는 약 159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9년 중에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4%대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입액과 수출액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간재 및 원자재의 수입규모가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외환보유액 지속적 증가

- 베트남의 외환보유액은 상품수지 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및 대외원조의 유입확대와 함께 베트남 해외교포의 송금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를 국가기밀로 간주하여 대외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으나, 2008년 상반기 중의 경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5월말 기준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를 204억 달러로 발표한 바 있음.

## II. 경제·정치 동향

- 또한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해외교포로부터의 송금이 2007년 중 비공식적인 송금까지 포함할 경우 7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과 함께 베트남 내 달러 유입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음.
- 다만, 2009년 중에는 베트남의 경기 위축을 반영하여 외환보유고가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 외국인투자 동향

#### □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증가세

- 2006년 기업법 및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허용분야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유전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FDI 유입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2009년 1~8월중 외국인투자 승인액이 약 504건, 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 기간 기준 외국인투자 유입은 기 승인 프로젝트의 자본금 유입 등으로 105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중 외국인투자를 형태별로 보면 전체 승인액의 56%가 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로는 공업지대 및 수출가공지대로의 투자가 1/3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 국제신인도

####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2007년 3월의 OECD 국가신용도전문가회의에서 베트남에 대한 평가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되었음. 이는 베트남의 열악한 법률 시스템 및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의 WTO 가입, PNTR 지위 획득 등을 반영한 것임.

— 그러나 2009년 4월의 OECD 국가신용도전문가회의에서 베트남에 대한 평가등급이 기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다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과도한 대출,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한 것임.

◦ I.C.R.G. : 66/140('08.3) → 83/140('08.9) → 69/140('09.8)

◦ Euromoney : 78/186('08.3) → 77/186('08.9) → 79/186('09.3)

◦ I.I. : 71/174('08.3) → 77/177('08.9) → 79/177('09.3)

◦ OECD : 5등급('6.4) → 4등급('07.3) → 5등급('09.4)

□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EXIM) : 제한적 인수 가능
- 네델란드(Atradius) :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ECGD) :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 아직은 투기적 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그동안 등급 상향 조정 추세를 보이던 주요 신용도 평가기관들이 최근의 베트남 경제 불안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전망을 모두 부정적(negative)로 변경하였으나, 등급 조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Moody's : Ba3(stable) → Ba3('07.3.15, positive) → Ba3('08.6.20, negative)
- S&P : BB-(positive) → BB('06.9.7, stable) → BB('08.5.2, negative)
- Fitch : BB-(stable) → BB-('08.5.29, negative)

□ 구조조정 성과가 신용등급에 영향 전망

— 비효율적인 공공기업 개혁, 금융기관들의 약 30%에 달하는 부실여신 해소, 세제 개혁 등이 향후 신용등급 향상과 연계되어 있음.

### □ 베트남 국제채 발행 성공

— 베트남은 2006년 1월, 7억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최초의 국제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음. 만기 10년, 표면 이율 7.125%인 이번 채권발행에는 모집 금액의 6배에 이르는 45억 달러가 몰렸으며, 조성된 자금은 국영조선소인 Vinashin사, 베트남 전력청, 베트남 항공사 등에 배분되었음.

### (2) 대외지급능력

<표 5> 대외채무규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1</sup>
총 외 채 잔 액	19,211	20,202	21,852	23,070	22,518
총외채잔액/GDP	46.9	40.1	38.3	33.1	35.5
D. S. R.	2.3	1.8	2.0	1.4	1.5

자료 : EIU, IFS

### □ 양허성 차관위주의 양호한 외채구조

— 2008년 말 기준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이 33%에 그치고 있고 외채가 주로 IMF 및 세계은행 차관을 포함해 양허성 차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S.R.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음.

### □ HIPC 대상국에서 제외

— 베트남은 세계은행이 분류하고 있는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고채무저소득국) 국가중 sustainable cases(기존 채무  
구제방식에 의한 외채해결 가능국)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05년  
3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HIPC 대상국 리스트에서 sustainable  
cases들이 HIPC 대상국에서 제외됨.

- 베트남은 세계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세계은행이 제시한 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 전략(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CPRGS)을 수행해 오고 있음.

## 2. 정치·사회 동향

### 가. 정치 동향

#### □ 베트남 공산당 체제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1976년 통일 이후 남부 출신의 총리, 중부 출신의 대통령, 북부  
출신의 총서기장 등 권력의 3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  
해 오고 있었으나, 2006년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된 10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총리와 대통령을 모두 남부지역 출신이  
차지하여 정치적 배분 보다는 경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 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정부 주요 요직 교체

- 지난 제10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현 농 득 만 총서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응웬 민 쩌엣, 총리는 응웬 쩌 쩌이 선출되었으며 공산당

서기국 서기인 쯔영 떤 상 서기와 함께 남부 출신의 경제전문가들이 대통령, 총리, 서기국 서기 등을 장악하여 향후 베트남의 경제 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난 1930년 노동자의 당으로 출범한 베트남 공산당이 당헌을 개정, 자본가의 공산당 영입을 허용함으로써 막대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나. 사회 동향

### □ 부정부패 해소 대책 착수

- 공무원 및 국영기업 간부의 부정부패 만연으로 인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판 반 카이 전 (前)총리는 반부패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국회도 국가감사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10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각된 ‘PMU 프로젝트 횡령사건’으로 불리는 일본 ODA 자금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정부 내 많은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큰 파문을 초래하고 있음.

### □ 소수 민족과의 대립이 사회불안 요소

- 베트남은 중앙고원지역에 많은 소수 종족이 산재해 있는데 이들의 생활여건향상과 경제여건 개선 조치를 통해 2001년 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 II. 경제·정치 동향

- 특히 라오스와의 국경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몽족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몽족들이 과거 베트남 전쟁 시 미국을 도와 북베트남과 대립하였고 현재에도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빈곤 퇴치에 성과

- 최근 들어 정부의 각종 보조지원과 국제원조에 힘입어 빈곤퇴치에 성과를 거둬 빈곤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원조국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정부는 2005년 9월초 대대적인 빈곤층 지원 사업을 위해 2010년 까지 39억 2,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우대 금리 대출, 재활 사업, 보건, 직업 훈련, 교육 부문 등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다. 국제관계

### □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

- 2005년 6월 종전 후 최초로 판 반 카이 총리가 미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한 이후 2007년 6월 18일에는 응웬 밉 쩌엣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었음을 나타냄.
- 한편 국경 마찰 등 역사적으로 잦은 분쟁을 겪은 중국과의 대외 관계도 2005년 7월 당시 쩌 득 르엉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해상 및 육상 국경 분쟁을 2008년까지 해결하기로 합의

한 이후 2009년 2월 23일 중국과 국경 경계선 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

#### □ 대외개방 경제정책 기조 유지

- ‘다양화, 다변화’라는 외교 정책 기조 하에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EU와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개선에 힘쓰는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려 함.

### 3. 성장의 동인 및 장애 요인

#### 가. 성장의 동인

##### □ 경제성장 잠재력

- 1986년의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 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후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최근 10년간 연평균 7.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 소득이

## II. 경제·정치 동향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가능성도 큰 상황임.

- 브릭스(BRICs)의 뒤를 잇는 신흥 강국으로 꼽히는 비스타(VISTA)의 한 국가로서 석탄, 석유, 철광석과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 양질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

-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상당수의 월남 난민들이 홍콩,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해외교포들 및 그 자녀들의 국내 귀환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노동력 유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 정치적 안정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총서기장, 총리, 대통령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 세력이 미약해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나. 성장의 장애 요인

### □ 관료주의로 행정 소요시간 및 비용 과다

- 외국인투자시에 제도상의 투자 허가기간 보다 몇 배의 시간이 소요됨. 투자허가와 그 이후의 토지 사용계약,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 예상보다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함.

### □ 열악한 사회 인프라

- 전력부문은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임.

### □ 불균형적인 발전

- 베트남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 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서만 집중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과의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또한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신속히 적응한 계층이 신흥 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차 소득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계층 간의 갈등이 향후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국영기업 주도하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간 기업의 성장이 부진했음. 국영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해 개혁이나 혁신 면에서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정부와 국영기업 사이의 관계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베트남 경제 성장을 이끌 민간 기업이 아직 부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 정책의 잦은 변화

-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내부 상황에 따라 이미 발표한 정책도 자주 변경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급입법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음.

## 4. 베트남 시장의 특징

#### □ 남부와 북부 베트남은 지역적으로 분할된 시장

- 베트남의 남북지역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매우 멀고(1,700Km) 물류여건이 좋지 않아 분할된 각각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것이 좋음. 이에 따라, 소비자 취향, 기 진출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도 상이하므로 시장진출전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함.

#### □ 유통체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제품군별로 상이

- 유통구조가 선진국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고 유통체계가 수입상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수입상 - 소매상 - 소비자, 수입상 - 소비자 등과 같이 다양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





- 또한, 소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낮게 책정함.

□ 지역별, 소득계층별 격차가 큰 시장

- 도시 - 농촌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크며, 같은 지역이라도 소득간 격차가 심하므로 목표고객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이에 따라, 소비 시장이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제품 시장과 도시 저소득층,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제품 시장으로 양분됨.

□ 투자허가 남발로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투자허가를 남발하여 내수 시장 점유경쟁이 치열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인투자업체가 11개사가 있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52개의 현지조립업체와 7개의 외국투자업체가 있음.
- 또한 수입관세 인상, 수입규제 등 정부발표가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음.

□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는 브랜드시장

- 베트남 소비자들은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복제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음.

## □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

- 베트남에도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은 있으나 베트남 정부와 소비자들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이에 따라 외국제품에 대한 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된 제품을 복제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기업은 베트남 특허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혹은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COV: Copyright Office of Vietnam)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함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